

4 뉴스

학생회관 승강기 설치 어려워

장비슬 기자 eva6155@knu.ac.kr

【서울】 학생회관에 승강기가 없어 많은 구성원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13년에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교는 교육 연구시설에 해당해 휠체어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학생회관은 8층 건물이지만, 준공했던 1960년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해 승강

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학생회관 건물은 다수의 중앙동아리와 학생회 기구가 사용하고 있다. 이중 동아리실이나 학생회실이 고층에 있는 경우 승강기 문제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학생회관 7층에 자리한 모공연 분과 동아리원 A 씨는 가장 큰 문제는 악기를 계단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토로했다. “음향기, 드럼, 키보드는 무게가 많이 나가 파손의 위험이 높아 운반 시 부담이 크다”며 “5kg 이상의 악기들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커 연습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또 동아리 부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건강상

의 이유로 계단을 오르기 힘들 때 승강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학생회관은 휠체어 경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크라운관으로 올라오는 계단 자체의 경사가 높아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 측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승강기 부재로 인해 학생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 역시 다른 건물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회관 관리실에 근무하는 B 씨는 “층마다 청소하고 내려올 때 쓰레기가 엎어질까 계단을 이용하기가 불안하다”며 “내부 수리가 있을 때도 직접 물건 자재들을 지게로 엮어 오르내리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고 밝혔다. 학생회관을 담당하는 청소노동자 C 씨 역시

“8층 건물을 두 명의 미화원이 층을 나누어 청소하지만 승강기가 없어 힘들다”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노동자로서 건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승강기 설치는 불가능한 상태다. 학생회관 건물의 상태와 구조상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승강기를 건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해 전체적인 내부 재배치 및 구조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회관 주변의 이동 경로에 따라 음악대학 방향에도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만, 음악대학 출입구로 인해 승강기 설치가 어렵다. 건물 외부에 설치하더라도 경희중·고등학교 방향의 경사로가 협소해 ▲도로 폭 ▲설치 장소 ▲경사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생회관의 승강기 문제는 지난 2019년에도 한 차례 논의가 이뤄졌

던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동일한 이유로 승강기가 설치되지 못했다. ▲경사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 특성과 ▲건물 자체의 노후화가 그 이유로 지적됐다.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이진섭 차장은 “당시 상황에서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승강기 설치 대신)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019년에는 학생회관 3층 세미나실과 1층 쉼터가 수리되기도 했다.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승강기의 설치 위치를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재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승강기의 설치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전학부 소속변경 추세변화

이지수 기자 ssu1404@knu.ac.kr

【서울】 자율전공학부(자전) 학생들의 소속변경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문과·통합·선발 영향으로 ‘경영대학 및 정경대학’ 흐름에서 벗어나 ‘이과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학년도 입시까지 자전은 인문계열 학생들만 선발했다. 그러나 지난 2022학년도부터는 문과·통합형으로 선발 방식이 달라지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자전에 대거 유입됐다.

이번 학기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학기별 소속변경 인원은 ▲자율전공학부 최대 72명 ▲경영대학 최대 43명 ▲정경대학 최대 12명 ▲이과대학 최대 7명 ▲호텔관광대학 최대 2명 ▲문화대학·생활과학대학·약학대학 최대 1명이다.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전에서 경영대학으로 소속변경한 고재준(경영학 2019) 씨는 “(인문계열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며 “(2020학년도에는) 이과대학으로의 전과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인문계열로 선발된 자전 학생들은 이과대학 기피 요인으로 ‘학문



(사진=유경민 기자)

적 거부감’을 손에 꼽는다. 실제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전에서 이과대학으로 소속변경한 노재인(정 보디스플레이학 2018) 씨는 “문과 출신으로 이과대학에 들어가 새롭게 배우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자율전공학부에서 (이과대학으로) 소속변경한 친구들은 다들 힘들게 공부해서 버틴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반면 22학번의 경우, 이과대학으로의 소속변경을 고려하는 인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보디스플레이학과(정디플)의 수요가 가장 높다. 정디플로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84명 중

23명으로, 이는 전체 인원의 27.4%에 달한다.

이에 이과대학은 자전 학생들의 정디플 전공 배정 선호도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여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과대학은 “지난 학기 자전 소속 학생의 이과대학 전공기초 과목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며 “입학처 등 대학본부와 회의를 통해 단과대학 차원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학기 자전 학생들의 급증으로 이과대학 학생들이 이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오는 2023학년도부터 이과대학은 1학년 수업에 한해 자전 학생 대상 추가 분반을 신설할 계획이다. 추가 분반은 1학기 3과목(▲미적분학 및 연습1 ▲물리학 및 실험1 ▲화학 및 실험1), 2학기 3과목(▲미적분학 및 연습2 ▲물리학 및 실험2 ▲화학 및 실험2)으로 예정돼 있다. 이과대학은 “추가 분반 개설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해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디플은 소속변경 등에 의한 학생 수 증가에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3면 ‘자치회비’에서 이어짐

하지만 국제캠의 자치회비 납부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번 학기 국제캠의 자치회비 납부율은 39.6%로, 재학생 10,243명 중 4,058명이 납부했다. 총 납부 금액은 3,855만 1,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국제캠의 자치회비 납부율인 39.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9년 2학기에 비해서는 약 16% 정도 낮은 수준이다. 2019년 2학기 자치회비 납부율은 55.8%로 재학생 10,947명 중 6,106명이 납부했다. 총 납부 금액은 5,800만 7,000원으로 이번 학기와 약 1,900만 원 차이가 난다.

자치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어대학 21학번 A 씨는 “지난 3학기 동안 비대면을 경험하며 자치회비를 내는 것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기 대면으로 전환됐음에도, 자치회비 납부가 나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자치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학기가 지속되면서 양캠의 자치회비 납부율은 지속해서 감소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양캠 자치회비 납부율 코로나 후 3년째 감소/대학주보 제 1686호 (2022.05.25.))

한편, 양캠 자치회비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자율경비 항목에 포함된다. 학생 한 명당 자치회비는 9,500원이다. 서울캠 자치회비는 총 학 28%, 단과대학 35%, 특별·산하 기구 37%의 비율로 배분한다. 국제캠 자치회비는 총 학 4,550원, 단과대학 4,200원, 중앙동아리연합회 500원, 응원단 250원으로 배분한다.